

## 제일모직, 창립 51주년 이웃사랑 봉사활동

제일모직은 9월15일 창립 51주년을 맞아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이웃사랑 봉사활동을 펼친다.

제진훈 제일모직 사장은 창립 기념사를 통해 “고객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영속(永續)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가치혁신이 중요하며, 무엇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이웃과 나누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일모직은 9월10일 여수사업장을 시작으로 9월말까지 사업장별로 결연관계를 맺고 있는 보육원,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등 20여곳에서 봉사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제진훈 사장은 9월12일 자매부대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장병들을 격려했으며, 9월13일에는 결손가정의 아동을 삼성미술관 리움에 초청해 미술품을 관람하고 학용품 등을 전달했다.

<화학저널 2005/09/15>